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이 병근·박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1.1 다양한 형태의 사전이 필요하다

사전은 해당 언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물인 동시에, 그 언어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여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특히 언어학자가 모두 포함된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언어 정보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해 나와 있는 사전들을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폭을 알 수 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 수준도 짐작할 수 있다. 언어란 것이 여러 층위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매우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에 대해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사전도 매우 다양한 모습, 다양한 용도를 가질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책을 읽다가 만난 어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글을 쓰다가 어떤 단어의 정확한 철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뒤적일 수도 있으며, (특히 외국어의 경우) 어떤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참조할 수도 있다. 전문 언어학자의 경우에도 사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역사언어학자들에게는 古語 사전, 語源 사전이 필요할 것이고, 어휘의미론 학자들에게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공동연구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을 준비하는 데 김현 선생과 김진형 선생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 둔다.

알려 주는 유의어 사전, 반의어 사전, 그리고 단어들을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해 놓은 시소러스thesaurus 등이 유용할 것이고, 통사론 학자들은 어떤 동사가 어떤 문형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적절한 용례를 찾기 위해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2개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의 경우에도 독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과 작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은 매우 다른 모습을 지닐 것이다.

사전 이용자의 요구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전에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어려운 일이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 특화된 다양한 사전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영어의 경우 사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아직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 나와 있지 못하다. 사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끔 특화된 다양한 종류의 사전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더 수준 높은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와 학문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일이다.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전문 언어학자 외에 사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이다. 최근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지만,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근본 원인이다. 사람이 컴퓨터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컴퓨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에 대한 수요와 이용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연 언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담

고 있는 매우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언어와 관련된 정보, 즉 컴퓨터가 그 언어를 알아듣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컴퓨터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 있어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사전, 즉 기계 가독형 사전(machine-readable dictionary)이다. 한 언어의 통사 규칙이나 음운 규칙은 그 나름대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적은 수의 규칙들로 형식화할 수 있다. 반면에 어휘(vocabulary)라는 것은 數的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본질상 규칙으로 말끔히 설명될 수 없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정보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연 언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전의 像에 맞추어 어휘에 대한 철두철미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결합설명 사전의 장점

사전은 한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 요소들에 관한 갖가지 정보의 총체이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국어 또는 외국어에 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이 정보를 그 언어의 사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전들은 대개 언어 이해(compréhension)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왔을 뿐, 언어 산출(production)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사전은 별로 없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을 찾는 일은 흔히 있어도,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참조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것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후자의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요구에 적합한 사전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일도 종종 있다. 산출에 초점을 맞춘 사전이 나온다면, 이런 사전에 대한 수요와 이용 가능성은 엄청날 것이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찾는 데에 사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모국어 사용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외국어 사용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와서 한국어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그 학자는 한국어에 대한 초급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한다. 그가 자신의 원고를 어렵사리 한국어로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고는 제대로 된 한국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두 언어의 번역 대응어(translation equivalent)들을 제시해 놓았을 뿐, 비슷비슷한 의미를 갖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학자가 자신의 거친 원고를 유려한 한국어로 가다듬는 데 도움을 주는 사전이 있다면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기계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썩은, 부패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로 *rot*, *rotten*, *spoilt*, *decayed*, *decomposed*, *putrefied*, *putrid*, *mouldered*, *rancid*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렇게나 서로 대치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수식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약되어 쓰인다. 또한, 한국어에는 “死亡”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운명하다’, ‘서거하다’, ‘작고하다’, ‘별세하다’, ‘돌아가(시)다’, ‘죽다’, ‘가다’, ‘(나가)돼지다’, ‘숨을 거두다’ 등 여럿이 있는데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문맥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사전은 고품질의 기계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전이 시장에서 팔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만, 사전의 가치가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Chomsky 학파의 대두 이래로 현대 언어학자들은 화자가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언어 능력)을 명시적인 형태로 표상하는 것을 언어학의 주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 중에서 통사론적 지식, 음운론적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표상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이론적 제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 어휘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어휘적 지식, 즉 어휘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 최근에야 이에 대한 관심이 차츰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어휘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에 관한 갖가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현대 언어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화자들이 자신의 모국어 어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을 총체적으로 모형화(modelling)하는 것, 몇몇 소수의 어휘에 대해 단편적인 기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의 어휘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기술을 행하는 것, 그 기술의 結晶體인 사전을 만드는 것은 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가치 있고 절실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은 실용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고는 I. A. Mel'čuk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결합설명 사전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EC의 어휘 기술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Mel'čuk은 오래 전에 러시아어의 결합설명 사전을 낸 바 있으며 1970년대에 Canada의 Université de Montréal에 정착한 뒤로는 프랑스어의 결합설명 사전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3권의 현대 프랑스어 결합설명 사전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DECFC이 출간되었으며 DECFC 제4권이 곧 나올 예정이다.

결합설명 사전은 의미나 통사적 특성 등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정밀한 방법론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들 사이의 어휘관계 lexical relation를 표상하는 데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전들 또는 어휘부 모형은 개별 단어들의 특성을 원자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제항으로 제시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결합설명 사전은 단어들이 서로 맺고 있는 어휘관계를 폭넓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론을 깊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고안된 장치는 어휘함수fonction lexicale, FL라 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어휘함수는 어휘관계 중에서도 특히 통합 관계, 즉 連語collocation 관계를 포착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어떤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어떤 술어 명사

와 어떤 기능동사가 공고한 결합 관계를 가지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産出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에 잘 부합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합설명 사전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전산언어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전자 사전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결합설명 사전이 적절한 모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컴퓨터 학자들과 결합설명 사전을 개발해 온 언어학자들 사이의 협동 연구가 진척되어, 최근에는 결합설명 사전의 지침에 따라 사전 항목을 기술하기 위한 사전 편집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사전 편찬의 방법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사전 편찬의 방법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또한 언어 사전 편찬이 컴퓨터에 의한 자연 언어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합설명 사전은 그런 점에서 미래의 사전에 대한 像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I. A. Melčuk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결합설명 사전의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어휘 기술 및 사전 편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사전 기술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결합설명 사전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어휘부에 대한 모형이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실용성과 전산 응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이 방법론이 응용될 수 있다면 많은 유용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선 2절에서는 결합설명 사전의 거시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이 사전의 미시구조 및 여기에 제시되는 각종 정보, 이들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된 원칙들을 살펴본다. 결합설명 사전에서 제시되는 여러 정보들 중 특히 어휘함수와 관련된 것은 4절에서 따로 자세히 논의한다. 5절에서는 결합설명 사전의 모형에 따라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기술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사전의 형식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결합설명 사전의 거시구조

DEC는 거시구조(어휘요소의 배열), 미시구조(표제항에 대한 각각의 언어 정보의 구획), 언어 정보 제시 방식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있다. 우선 DEC 편찬의 지침이 되는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겠다.

2.1 단어vocable와 어휘요소lexie

보통의 다른 사전들은 동형어들을 어깨번호로 구별하고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여러 의미들을 하나의 표제항 내에서 번호로 구별하는 방식을 대개 취한다. DEC에서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닐 때(즉 다의어일 때) 이들을 한데 모아 배열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사전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DEC에서 표제항이 되는 기본 단위는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의어가 아니라, 다의어가 갖는 여러 의미들 중 어느 하나의 특정 의미를 갖는 경우로 제한된 단어이다.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에서는 전자를 단어vocable, 후자를 어휘소lexème라고 부른다.¹⁾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갖가지 정보도 어휘소를 단위로 하여 제시된다. 이것은 다른 사전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DEC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리1’(脚)과 ‘다리2’(橋)는 별개의 vocable이 되며, ‘다리1’의 의미 중 “사람의 신체부위로서의 다리”, “동물의 신체부위로서의 다리”, “탁자 등 가구의 다리” 등등은 vocable ‘다리1’에 속하는 어휘소들이 된다.

DEC의 거시구조가 보이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숙어도 표제항으로 등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MTT에서는 숙어소 phrasème라고 부른다. 다른 사전들에서는 이런 숙어를, 그 숙어 속에 포함된 핵심 단어의 부표제항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MTT에서는 숙어소도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뿐이지, 의미나 결합상의 특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보면 어휘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위

1) vocable의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워 일단 단어라고 해 둔다. 어휘소의 개념도 보통 다른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차이가 있다.

모두 사전에서 표제항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휘소와 속어소를 아울러서 어휘요소lexie라고 부른다. 요컨대, DEC에서 언어 정보 제시의 단위가 되는 표제항은 어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두 개의 어휘소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이 둘을 하나의 *vocable*에 속하는 것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vocable*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온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별 문제인 것이다. DEC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은, 형태상으로 일치하는 두 어휘소가 정의*définition*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vocable*로 묶고, 정의에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동형어로 간주하여 별개의 *vocable*에 소속시킨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MTT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 (1) 의미 가교*pont sémantique*: L_1 과 L_2 라는 두 어휘요소가 있을 때 이 둘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적인(자명하지 않은) 공통 성분을 둘 사이의 의미 가교라고 부른다.

여기서 ‘특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 (2) 특징적인 공통 성분: 두 어휘소소의 의미의 공통 성분은 다음의 3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특징적인 공통 성분이라 할 수 있다.
- ① 문법적인 의미 또는 매우 일반적인 의미(“and”, “or”, “존재”, “사람” 등)이어서는 안 된다.
 - ② 두 의미에서 각각 차지하는 중요성이 비슷해야 한다.
 - ③ 두 의미에서 각각 비슷한 계층상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의미 가교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어휘요소들 사이의 관련성, *vocable*, 기저 어휘요소 등을 정의할 수 있다.

- (3)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lien direct/indirect*: $\langle L_1 \rangle$ 과 $\langle L_2 \rangle$ 라는 두 의미 사이에 의미가 교차 존재하면, 이 둘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langle L_1 \rangle$ 과 $\langle L_2 \rangle$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존재하지 않지만, $\langle L_1 \rangle$, $\langle L' \rangle$, $\langle L'' \rangle$, $\langle L''' \rangle$, ..., $\langle L_2 \rangle$ 과 같은 연쇄에서 각각의 인접한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langle L_1 \rangle$ 과 $\langle L_2 \rangle$ 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 (4) *vocable*: n 개의 어휘요소 L_1, L_2, \dots, L_n 이 모두 記標 *signifiant*가 같고, 이들 중 어느 둘 사이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존재할 때, 이 n 개의 어휘요소의 총체는 하나의 *vocable*이 된다.
- (5) 기저 어휘요소 *lexie de base*: 어떤 *vocable*의 어휘요소들 중 L 이라는 어휘요소가 있다고 할 때, 다른 모든 어휘요소들은 직접적/간접적으로 L 을 참조하고 L 은 다른 어휘요소를 전혀 참조하지 않을 때, L 을 이 *vocable*의 기저 어휘요소라고 한다.

2.2 어휘요소들의 배열 순서

하나의 *vocable* 내에서 어휘요소들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DEC는 명시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각 어휘요소의 의미 정의에 입각해 있으므로, 각 어휘요소의 의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3.2.2에서 다룬다. 원칙들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원칙 7.2) 의미 포함의 원칙: L_1 의 정의가 L_2 의 정의에 포함되면, L_1 이 L_2 보다 앞에 온다.

자동사 ‘움직이-’와 타동사 ‘움직이-’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정의가 후자의 정

2) 본고에서 소개하는 원칙이나 기준의 번호는 Mel'čuk et al.(1995)를 따른다.

의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자를 후자보다 앞에 배열한다.

원칙 8. 의미 근접성의 원칙: 의미상 L_1 이 L_2 보다 L (기저 어휘요소)에 가까울 경우, L , L_1 , L_2 의 순서로 제시한다.

동사 ‘타다’의 경우 ‘종이가 타다’ 같은 예는 L , ‘밥이 타다’ 같은 예는 L_1 , ‘얼굴이 붉벌에 타다’ 같은 예는 L_2 라고 할 수 있다.³⁾ 여기서 L_1 이 L_2 보다 L 에 가까우므로 L_1 을 L_2 앞에 위치시킨다.

형용사 ‘좋다’의 경우 ‘품질이 좋다(양호)’ 같은 예를 기저 어휘요소 L 이라 할 수 있는데, ‘감기에는 이 약이 좋다(적합)’ 같은 예를 L_1 , ‘나는 철수가 좋다(호감)’ 같은 예를 L_2 라 하면, L_1 이 L_2 보다 L 에 가까우므로 L_1 을 L_2 앞에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원칙 9. 환유 우선의 원칙: L 에 대해 L_1 의 의미는 환유métonymie에 의한 확장이고 L_2 의 의미는 은유métaphore에 의한 확장일 때, L , L_1 , L_2 의 순서로 제시한다.

‘머리’라는 *vocable*의 경우 “사람의 신체부위로서의 머리”가 기저 어휘요소가 될텐데, 여기서 확장된 의미를 갖는 어휘소들 중에 “머리털/머리카락”과 “우두머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둘 중 전자는 기저 어휘요소의 환유적 확장이고 후자는 은유적 확장이므로 전자를 후자 앞에 배열한다는 것이다.

동사 ‘밟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발로 바닥을 누르다”를 L , ‘고국 땅을 밟다(방문)’ 같은 예를 L_1 , ‘그는 내 의견을 완전히 밟아 버렸다(무시)’ 같은 예를 L_2 라 하면, L_1 은 L 의 환유적 확장이고 L_2 는 L 의 은유적 확장이므로 L_1 을 L_2 앞에 배열한다.

3) 연세한국어사전 타다1 ㉠의 ①~③.

원칙 10. 의미 성분 위계의 원칙: L의 정의에 출현하는 의미 성분들 중 L₁의 은유적 확장의 기반이 되는 의미 성분이 L₂의 은유적 확장의 기반이 되는 의미 성분보다 앞에 오면, L₁이 L₂보다 앞에 온다.

‘날개’의 기저 어휘요소 L을 “새나 곤충의 몸통 양쪽에 붙은, 날 때에 펄럭거리는 부분”이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L₁은 “비행기의 몸통 양쪽에 붙은, 날 때에 공기의 떠받치는 힘을 받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L₂는 “기계나 기구에 붙은, 바람개비 모양의 펄럭거리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선풍기의 날개’ 같은 예). 여기서 L₁과 L₂ 모두 L의 은유적 확장이지만, L₁의 은유적 확장의 기반이 되는 “...의 몸통 양쪽에 붙은, 날 때에”라는 의미 성분이 L₂의 은유적 확장의 기반이 되는 “펄럭거리는 부분”이라는 의미 성분보다 L의 정의 내에서 앞에 나오므로, L₁을 L₂ 앞에 배열한다.

원칙 11. 특징적 성격의 원칙: 해당 어휘장에 대해 L₁이 L₂보다 특징적이라면 L₁이 L₂보다 앞에 온다.

‘주먹’이라는 *vocable*에 속하는 어휘소들 중에는 수량 단위 의존명사로서 “주먹I(신체 부위)에 담을 수 있는 양”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있다(‘강냉이 한 주먹’ 같은 예). 그런데 신체 부위의 어휘장에서 이러한 어휘소를 갖는 *vocable*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이 어휘소는 신체 부위 어휘장에서 매우 예외적이므로 *vocable* ‘주먹’의 다른 어휘소들보다 뒤에 배열된다.

3. 결합설명 사전의 미시구조

3.1 어휘요소 분할의 기준

앞에서 말했듯이 DEC는 하나의 *vocable*을 우선 의미에 따라 어휘요소들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DEC의 미시구조 구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의 *vocable*을 어휘요소들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DEC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1. 다중 해석의 기준: 어휘요소 후보 $L(\dots\sigma'\dots\sigma''\dots)$ 을 포함하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 문장이 L로 인해 두 가지 해석을 가지며 이 중 한 해석은 $(\dots\sigma'\dots)$ 을, 다른 한 해석은 $(\dots\sigma''\dots)$ 을 포함할 경우, 이 L은 $L_1(\dots\sigma'\dots)$ 과 $L_2(\dots\sigma''\dots)$ 로 분리한다.

‘그는 어제 산 두 물건을 저울질해 보았다’라는 문장은 실제로 저울로 두 물건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두 물건을 비교해 보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중의성은 오로지 ‘저울질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 해석의 기준에 의해 ‘저울질하다’는 두 개의 어휘소로 구분되어야 한다.

기준 2. 局所的/全局的 의미 차이의 기준: 어휘요소 L의 두 가지 용법이 보이는 의미 차이가 국소적일 때에는(즉 정의 내의 다른 의미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의 어휘요소로 처리하고, 의미 차이가 전국적일 때에는(즉 정의 내의 다른 의미 성분에 영향을 미치면) 두 개의 어휘요소로 분리한다.

‘팔다’는 “돈을 받고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다”라는 의미(‘집을 팔다’ 같은 예)와 “돈을 받고 자기 몸의 性的인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하다”라는 의미(‘몸을 팔다’ 같은 예)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의 의미 차이는 국소적이고 통사적 특성이나 어휘적 공기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둘을 별개의 어휘소로 분리하지 않는다.

기준 3. 양립가능한 共起의 기준: 어휘요소 후보 $L(\dots\sigma'\dots\sigma''\dots)$ 을 사용하여 양립 가능한 공기를 가진 문장(즉 두 의미 성분 $(\dots\sigma'\dots)$ 과 $(\dots\sigma''\dots)$ 에 각각 대응하는 별도의 어휘요소를 포함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L을 분리

하지 않고 하나의 어휘요소로 처리하며 L의 정의 속에 (...σ' 또는 σ"...)'
과 같이 이접disjunction을 사용한다.

‘동생’은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나 여자”로 정의할 수 있다.⁴⁾ 그런데 다른 사전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어휘소로 분할하여 하나는 “.....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로, 다른 하나는 “.....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양립가능한 공기의 원칙이다. ‘철수와 영희는 모두 자기 동생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문장은 철수의 동생이 남동생이고 영희의 동생이 여동생인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즉 ‘동생’의 두 의미 성분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각각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생’을 두 개의 어휘소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어휘소로 처리한다. 양립가능한 공기의 원칙은 이 원칙을 처음 제안한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Green-Appresjan의 기준이라고도 불린다.

기준 4. 차별적 공기의 기준: 어휘요소 후보 L(...σ'...σ"...)'에 대해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형태적, 통사적, 어휘적) 공기 요소들의 집합 둘을 뽑아낼 수 있고 이 두 집합이 각각 (σ')과 (σ'')에 대응할 경우, L을 두 개의 어휘소로 분리해야 한다.

‘알다’의 여러 어휘소들 중에 “어떤 사실을 인식하다”(L₁), “사실이 어떠어떠하다고 생각하다”(L₂),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L₃) 등이 있다. 그런데 ‘-니 줄로’ 형태의 보문은 L₂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L₃는 ‘-리 줄’ 형태의 보문만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셋은 별도의 어휘소로 분리되어야 한다.

기준 5. 차별적 파생의 기준: 어휘요소 후보 L(...σ'...σ"...)'에 대해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파생 요소들의 집합 둘을 뽑아낼 수 있고 이 두 집합이 각각 (σ')

4) 연세한국어사전 동생 ①.

과 (σ^m)에 대응할 경우, L을 두 개의 어휘요소로 분리해야 한다.

‘식다’는 “더운 기가 없어지다”(‘밥이 식다’ 같은 예)와 “감정이나 기운의 강도가 약해지다”(‘벤처 열기가 식기 전에’ 같은 예)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사동사 ‘식히다’는 “더운 기를 없애다”의 의미만 갖는다. 따라서 차별적 파생의 기준에 따라 ‘식다’를 두 개의 어휘소로 분리해야 한다.

3.2 결합설명 사전의 미시구조 구획

결합설명 사전은 각 표제항에 대해 미시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획을 나누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1. 음운 구획: 발음, 운율적 특징.
2. 의미 구획: 정의, 함축적 의미.
3. 통사적 결합 구획: 지배도식, 논항들의 共起 제약.
4. 어휘적 결합 구획: 표제항의 의미나 통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특이한 결합상의 특징.
5. 용례 구획
6. 관용표현 구획

다음에서는 각 표제항lexie vedette에 대해 DEC에서 구분하고 있는 미시구조의 각각의 구획에 대해 살펴본다.

3.2.1 음운 구획

표제항의 記標signifiant의 음운 형식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철자법 관련 정보도 이 곳에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DEC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운율적 정보도 기존 사전들에서는 대개 무시되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Mel'čuk이 지적하고 있다.

3.2.2 의미 구획

DEC의 의미 구획은 사전적 정의 *définition lexicographique* 부분과 내포적 의미 *connotation* 부분으로 나뉜다. DEC가 엄격한 언어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편찬된 사전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 바로 의미 구획, 그 중에서도 특히 정의 부분이다. DEC의 이름에서 ‘*explicatif*’라는 말은 정의를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명시적으로 완벽하게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정의는 DEC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DEC에서 사전 정의 작성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칙 1. 명제 형식의 원칙: 술어적 의미를 갖는 어휘요소는 피정의항 자체가 의미 논항⁵⁾에 해당하는 변항들을 포함한 명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피정의항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다. 동사나 형용사같이 논항을 필요로 하는 단어는 피정의항이 논항들을 포함하는 온전한 명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정의를 제대로 줄 수 있다.⁶⁾ 그래서 ‘약속하다’라는 동사의 정의를 제시할 때 피정의항을 ‘X가 Z에게 Y를 약속하다’와 같은 명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정의항에서 X, Y, Z 등의 논항이 갖는 의미론적 제약 등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다.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선택 제약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정의에서 자연스럽게 포착될 수 있다.

원칙 2. 해체의 원칙: 정의항에 등장하는 어휘요소들은 피정의항이 되는 어휘요소 L보다 의미가 더 단순해야 한다.

기존 사전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피정의항보다 어려운

5) 의미 논항과 통사 논항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6)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에서도 정의를 제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hear’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when you hear sounds’와 같은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단어가 정의항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에서 정의(뜻풀이)를 제시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순환적 정의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A=B+C$ 로, $B=D+E$ 로, $D=A+F$ 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 결국 A를 정의하는 데 A를 이용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의항에는 피정의항보다 의미가 더 단순한 단어들만 사용하는 것이다. ‘해체의 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복잡한 단어들을 좀더 단순한 단어들로 정의(해체)해 나가다 보면, 중국에는 해당 언어의 다른 단어들로 정의할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미 원소 *primitif sémantique* 이다.

원칙 3. 최대 블록 원칙: 정의를 할 때 의미 해체는 가능한 한 얇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휘요소 L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n개의 어휘요소 L_1, L_2, \dots, L_n 중에서 어떤 둘 이상의 어휘요소들의 결합이 하나의 어휘요소로 대체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Wierzbicka 같은 학자들은 정의항에 의미 원소들만 사용하자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 작성에 있어서 작성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고, 앞에서 말한 순환적 정의의 문제, 피정의항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정의항에 사용하는 문제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TT에서는 의미 원소의 수준까지 단번에 깊은 의미 해체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얇은 수준에서 의미 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항상 의미 원소들만 사용해서 정의를 하려 하면 정의가 너무 길어져서 피정의항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되며, 또한 서로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흐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Simon Dik의 *Functional Grammar*에서도 *Stepwise Semantic Decomposition*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MTT의 최대 블록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원칙 4. 표준화의 원칙: 정의항에서 중의적인 용어나 동의적인 용어들을 사용하

는 것은 피해야 한다. 즉, 정의항에 사용되는 용어는 항상 하나의 의미만 지녀야 하고 하나의 의미는 항상 하나의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기존 사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의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다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언어를 잘 알고 있는 모국어 화자는 문맥 등을 고려하여 뜻을 이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나 컴퓨터를 위한 전자사전에서는 정의에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항에 다의어가 사용될 때 이 *vocable*의 어떤 어휘요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표시해 주어야 한다. 동형어는 위첨자 숫자로, 의미 차이가 크고 불규칙적인 어휘요소들은 로마숫자로, 의미 차이가 작고 규칙적일 때는 아라비아숫자로, 의미 차이가 매우 작고 의미·통사적으로 규칙적인 관계일 때는 로마자 소문자로 구분한다. ‘다리’를 예로 들어 이 규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다리¹ 橋

- I. 물이나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시설. ‘강에 다리를 놓다’
- II.1.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거치게 되는 중간 단계. ‘몇 다리 건너서 소식을 전해 듣다’
- 2. 사람이나 단체 사이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수단. ‘김 사장님과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세요’

다리² 脚

- I.1a. 사람의 몸의 아래 부분. ‘철수가 다리를 다쳤다’
- 1b. 동물의 몸의 아래 부분. ‘우리집 개가 다리를 짚뚝거린다’
- 2. 오징어, 문어, 히드라 등의 촉수. ‘문어는 다리가 8개이다’
- II.1. 옷에서 다리 I.1a에 해당하는 부분. ‘이 바지는 한 쪽 다리가 짧다’
- 2. 사물의 떠받치는 부분. ‘이 책상은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 3.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되어 있는 부분. ‘다리가 부러진 안경’

‘다리’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위의 다리² II.1.의 정의항에서 그냥 ‘다리’라고 하지

않고 '다리 I.1a'와 같이 구분 번호를 붙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DEC에서 이미 기술되어 있는 단어의 경우에는 DEC의 해당 구분 번호를 붙여 주면 되겠지만, DEC에서 아직 기술되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임시로 다른 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 번호를 붙여 줄 수밖에 없다.

원칙 5. 대치 가능성의 원칙: 피정의항과 정의항은 모든 발화에서 의미 차이 없이 서로 대치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피정의항이 사용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의항이 피정의항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나타낸다면 이 둘은 서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의항이 피정의항보다 길고 장황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정의항을 정의항으로 대치하면 자연스럽게 못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적 의미의 측면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전 정의에서는 해당 단어와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은 제외하고 언어적 정보만 제시한다. 언어적 정보란 그 단어에 대해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백과사전적 정보란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언어적 정보인지 백과사전적 정보인지 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MTT에서는 다음의 원리를 제안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준 6. 언어적 관여성의 기준: 어휘요소 L의 정의에 포함시킬 만한 의미 성분의 후보(σ)가 있는데, 이 의미 성분이 L의 지시 대상의 내재적 속성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 속성이 변별적인 속성은 아니라고 할 때, 해당 언어에 L과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정의에 (σ)가 포함되어 있는 어휘요소 L_1 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럴 때에만 (σ)를 L의 정의에 포함시킨다.

L과 L₁ 사이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 (a) L₁이 L과 같은 vocable에 속하는 어휘요소인 경우
- (b) L₁이 L에서 파생된 단어 또는 L을 포함한 합성어인 경우
- (c) L₁이 L을 포함하는 숙어소인 경우

이 세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머리’라는 어휘소의 정의에 “지능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을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백과사전적 정보로 간주하여 정의에서 제외해야 할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머리가 좋다/나쁘다’, ‘머리를 쓰다’와 같은 표현을 보면 ‘머리’라는 vocable 내에 “지능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 어휘소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a)에 의해 “지능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이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어휘소 ‘머리’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게 된다. 사람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어휘소 ‘다리’의 경우에도 탁자 등의 사물을 떠받치는 부분을 가리키는 어휘소가 존재하므로 “支持”라는 의미 성분이 신체부위 어휘소 ‘다리’의 정의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b) ‘일손’ 같은 합성어가 존재하므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어휘소 ‘손’의 정의에 “노동의 주요 수단”이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빠르게”의 의미를 갖는 ‘총알처럼’이라는 숙어소가 존재하므로 ‘총알’의 정의에 “빠르다”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DEC는 어휘요소의 共起 관계cooccurrence relation에 관한 정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유명한 사전이다. 어휘요소의 공기 관계에는 의미적 공기 관계와 어휘적 공기 관계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해당 어휘요소의 의미 정의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공기 관계이고, 후자는 의미 정의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어휘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공기 관계이다. 예를 들어 동사 ‘기다리다’가 ‘애타게’ 같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다리다’의 의미 정의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의미적 공기 관계의 예이다. 그러나 ‘애타게’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수식으로 ‘눈이 빠지게’나 ‘목이 빠지게’라는 특정 표현이 ‘기다리다’의 수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이들 어휘요소의 개별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휘적 공기 관계로 간주된다. DEC에서 어휘적 공기 관계는 어휘함수라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⁷⁾ 의미적 공기 관계도 중시하여 정의 작성시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표제항 어휘요소가 어떤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표상하지는 않는다. 그런 표현들의 집합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부터 그런 표현과의 공기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7~9의 세 가지 기준은 어떤 어휘요소의 정의에 어떤 의미 성분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해당 어휘요소의 결합적 속성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준 7. 질적 수식어와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과 그 질적 수식어 사이의 공기 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기도’의 정의에 어떠한 의미 성분들이 들어가야 할까? 기도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회개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기도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에 목적과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다’에서 보듯이 명사 ‘기도’는 형용사 ‘간절한’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동사 ‘기도하다’는 부사 ‘간절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간절하다’는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절실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므로, ‘기도’나 ‘기도하다’의 정의에는 “바라다”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8. 양화사와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과 양화사 사이의 공기 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7)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술한다.

‘김’이나 ‘미역’이나 ‘파래’ 모두 해조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김’은 ‘김 두 장’과 같이 수량 단위 의존명사 ‘장’을 사용하여 수량화될 수 있는 반면에 ‘미역’이나 ‘파래’는 그런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김’의 정의에 종이처럼 얇고 네모진 형태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9. 부정과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이 부정과 결합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망인’을 “남편을 여윈,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라고 정의한다고 가정한다면, ‘김 교수는 미망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김 교수가 여자가 아닐 때도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 교수는 미망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들어도 김 교수가 여자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미망인’의 정의에서 “남편을 여윈”이라는 의미 성분과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라는 의미 성분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DEC에서는 이렇게 否定되어도 보존되는 의미 성분, 즉 전제에 해당하는 의미 성분은 따로 명시적으로 표상해 준다. 즉 ‘X는 미망인이다’ 같은 피정의항의 경우 “X는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인데 || 남편을 여의었다”와 같은 식으로 전제 부분을 따로 떼어서 ‘||’ 앞에 제시한다.

6~9의 기준은 정의에 어떤 의미 성분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정의에 포함시킬 의미 성분이 결정되고 나면, 이들 성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정의에 사용되는 의미 성분들을 그 지위나 성격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DEC에서 구분하고 있는 의미 성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6) 의미 성분의 종류

- ㉠ 보통 성분: 다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의미 성분이 이에 속

한다.

- ㉠ 유개념 성분: ‘장롱’을 ‘옷이나 이불 등을 넣어 두는 가구’라고 정의할 때 ‘가구’가 유개념 성분에 해당한다. 즉 어휘요소 L의 시니피에가 속하는 가까운 장르를 말한다.
- ㉡ 약한 성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억제되고 무효화되는 의미 성분이다. ‘자동차’의 정의에 바퀴가 4개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때, ‘3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무효화되어야 하므로 약한 성분이라 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 ㉢ 수의적 성분: 무표적으로는 그대로 성립되지만 반대되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을 때에는 취소되는 성분이다. ‘교수(教授)’의 정의에 “교육기관에 소속되어”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개인교수’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 성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성분은 수의적 성분이다.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 ㉣ 변항에 대한 제약: 표제항이 술어적 의미를 지닐 때, 표제항의 의미 논항의 특징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X가 Z에게 W에 대해 Y를 지불하다’에서 변항 Y가 돈의 액수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이에 해당한다.
- ㉤ 전체적 부분: 否定되어도 변함 없이 성립되는 의미 성분이다. 앞의 ‘미망인’의 예 참조.

정의에서 이들 성분의 배열 순서와 관련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6. 의미론적 관여성에 의한 배열의 원칙: 의미 특성 (σ_1)을 나타내는 성분이 (σ_2)를 나타내는 성분보다 더 관여적이라면, 전자가 후자보다 앞에 와야 한다.

‘손가락’의 정의에 “움직일 수 있다”, “마디로 나뉘어 있다”, “길쭉하다” 등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느 것이 더 관여적인가? ‘그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사과를 쥐기도 어렵다’ 같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따라서 “길

쭉하다”는 것은 손가락의 필수적인 속성은 아니다. 그리고 로봇의 손가락 같은 경우 마디로 나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섯 가닥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손가락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손가락’의 정의에서 관여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마디로 나뉘어 있다”, “길쭉하다”의 순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의미 구획에서 사전적 정의가 제시된 뒤에는 내포적 의미connotation가 제시된다. 내포적 의미란 L의 사전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L이 자신의 지시대상에 부여하는 의미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람’이라는 vocable의 기저 어휘요소는 “기상 현상으로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기의 수평적 움직임”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바람이 나다’, ‘바람이 들다’, ‘바람을 넣다’ 등의 숙어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 “들뜨고 허황되다” 내지 “덧없다” 정도의 의미 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나다’ 같은 숙어소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들뜨고 허황되다” 또는 “덧없다” 같은 의미 성분을 기상 현상으로서의 ‘바람’의 정의에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 성분은 기상 현상으로서의 ‘바람’의 내포적 의미에 제시된다.

어떤 의미 성분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포적 의미에 포함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DEC에서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10. 반대 의미의 기준: L의 의미 성분의 후보 (σ)가 있다고 할 때, (σ)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를 L에 부가했을 때 모순을 낳게 되면, L의 정의에 (σ)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σ)가 L의 내포적 의미에 포함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 “덧없다” 내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특성을 부여하는 듯한데, ‘이 지역에는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므로 반대 의미의 기준에 의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성분은 정의가 아니라 내포적 의미에 제시된다.

기준 11. “나쁜 상태”의 기준: “L의 지시대상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L의 지시대상이 어떤 기능(σ)을 잘 못한다”는 것을 함의한다면, (σ)가 L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L의 내포적 의미에 포함된다.

‘머리’와 ‘가슴’은 기저 어휘요소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데, 부차적으로 ‘머리’는 “思考의 중추 기관”, ‘가슴’은 “감정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특성도 화자들이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같은 예). 이들 부차적 의미 특성을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기저 어휘소의 정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포적 의미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같은 표현이 “사고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를 함의하므로, “사고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은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머리’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아프다’ 같은 표현이 “감정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함의를 갖지는 않으므로, “감정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은 ‘가슴’의 내포적 의미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2.3 통사적 결합 구획

어떤 어휘요소의 통사적 행동 중에는 그 어휘요소의 의미 내지 정의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났다’가 ‘-보다’ 보어를 취하는 것은 ‘났다’의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못하다’가 ‘-만’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통사적 특이성 syntactic idiosyncrasy이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전자의 사실에 주로 주목하고 의미와 통사 특성의 상관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후자의 정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이것은 사전에서 명시해 주어야 한다. DEC의 통사적 결합 구획은 바로 이런 정보를 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이다.

어휘요소 L의 통사적 특성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휘요소 L이 다른 어휘요소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L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의존요소들의 통사적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성이다. 전자는 어휘적 속성이라기보다는 문법적 속성에 가깝고, 따라서 사전에서 제공할 만한 정보는 아니다. 따라서 DEC는 후자의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

어휘요소 L이 거느리고 있는 요소들, 즉 논항들에 대한 정보는 L의 통사적 결합 구획에서 제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다. 그런데 MTT에서는 논항이라는 개념을 층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의한다. 즉, 의미 표상, 심층 통사 표상, 표층 통사 표상 등 여러 표상 층위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논항의 개념도 의미 논항, 심층 통사 논항, 표층 통사 논항으로 구분하여 정의되는 것이다(홍재성·박동호 2000 참조). 어휘요소 L이 述語的 의미를 가질 경우, 이 술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들을 어휘요소 L의 의미 논항actant sémantique이라고 한다. 의미 논항은 흔히 X, Y, Z, W와 같은 변항으로 표시한다. 의미 논항에 해당하면서 L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를 L의 심층 통사 논항actant syntaxique profond이라고 한다. 심층 통사 논항은 I, II, III과 같은 로마숫자로 표시한다. 표층 통사 논항은 표면적으로 L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를 말하며, 전통문법의 주어, 목적어 등에 해당한다. ‘만들다’를 예로 들면, 이 어휘요소는 의미상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므로 X(만드는 자), Y(만들어지는 것)라는 2개의 의미 논항을 갖는다. X는 심층 통사 표상에서 주어에 해당하므로 심층 통사 논항 I이 되고, Y는 심층 통사 표상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심층 통사 논항 II가 된다. 그런데 심층 통사 논항과 표층 통사 논항이 항상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표층 통사 표상에서 능동태로 실현되면(‘철수가 책꽂이를 만들었다’) I은 주어로 실현되고 II는 목적어로 실현되는 반면에, 표층 통사 표상에서 피동태로 실현되면(‘책꽂이가 철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II가 주어로 실현되고 I은 사격 보어로 실현된다. 영어나 불어의 氣象 동사, 예를 들어 *rain, snow; pleuvoir, neiger*는 의미 논항이나 심층 통사 논항을 갖지 않지만,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표층 통사 층위의 규칙 때문에 *it, il* 같은 허사 주어를 표층 통사 논항으로 취한다. ‘굴다’ 같은 경우 심층 통사 논항 II가 표층에서는 부사형어미 ‘-게’나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로 끝나는 부사어로 실현된다.

DEC의 통사 결합 구획에 제시되는 L의 논항 정보는 심층 통사 논항에 대한 정보이다. 이 정보는 지배도식government pattern/schéma de régime이라 불리는 표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 표에서 표제항의 심층 통사 논항들의 수와 형태에 관한 정보, 논항들 사이의 공기 제약에 관한 정보 등이 명시된다. ‘약속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예: ‘약속하다’의 지배도식

I=X	II=Y	III=Z
N _{nom}	(1) N _{acc} (2) 절+-을 것을 (3) 절+-기로 (4) 절+-다고/자고/마고	(1) N _{dat} (2) N _{com}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Y는 사태(동작)임.
- ③ Z=(1)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임.
- ④ Z=(2)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Z 또는 X임.
- ⑤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 ⑥ Z=(1)이고 Y=(4)일 때 ‘절+-다고/마고’만 가능.
- ⑦ Z=(2)이고 Y=(4)일 때 ‘절+-자고’만 가능.

‘약속하다’의 의미는 약속의 주체인 화자, 약속한 발화 내용, 말을 듣는 청자의 세 논항을 요구하는데, 이 셋에 해당하는 요소가 각각 의미 논항 X, Y, Z가 되며, 이에 해당하는 심층 통사 논항이 각각 I, II, III이 된다. 이 세 논항이 위 표에서 각각 하나의 열colonne을 차지한다. 각 열 내에서는 이 논항이 표층 통사 표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모두 제시한다. I은 주격 명사로밖에 실현될 수 없지만, III은 여격 명사 또는 공동격 명사로 실현될 수 있으며, II는 대격 명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절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각 열 내의 각 행ligne에 해당한다.

표 밑에는 각 논항의 각각의 표면적 실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된다. 우선 특정 열의 특정 행이 명사일 때, 이 명사가 특정 의미 부류에 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마시다’의 목적 보어 명사의 지시 대상은 流體이어야 한다. 흔히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약속하다’의 경우 X와 Z 모두 사람이어야 하고, Y는 X가 수행하겠다고 하는 미래의 동작이다. 또한 특정 논항의 특정 실현 방식은 다른 논항의 특정 실현 방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제약 관계로 맺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논항의 실현들 사이의 제약 관계도 명시된다. ‘약속하다’의 경우 Z가 여격이면 Y는 ‘-다고’, ‘-마고’로 실현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고’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Z가 공동격이면 Y는 ‘-자고’만 가능하다.

3.2.4 어휘적 결합 구획

DEC에서는 특정 단어들 사이에 성립되는 결합상의 제약이나 어휘관계를 어휘함수라는 기제를 통해 포착한다. 규칙적 어휘함수(단순 표준 어휘함수), 불규칙적 어휘함수(복합 어휘함수, 어휘함수의 배열, 비표준 어휘함수)로 나누어 제시한다.⁸⁾

3.2.5 용례 구획

앞의 각 항목에서 제시된 언어학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용례를 적절한 순서로 제시한다. 특정 제약을 보여 주기 위해 불가능한 용례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코퍼스에서 적절한 용례를 찾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언어학적 정보를 적절히 예시하기 위해 코퍼스에서 추출된 용례에 변개를 가할 수도 있고 용례를 완전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

3.2.6 관용표현 구획

DEC에서 모든 숙어소phrasème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 우선 숙어소의 3

8) 어휘함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절 참고.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7) 숙어소의 종류

- ㉠ 완전한 숙어소 *phrasème complet*: 숙어소 AB가 'C'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C'가 A의 의미도, B의 의미도 포함하지 않을 때, 즉 'C'가 'A', 'C'가 'B'일 때, AB를 완전한 숙어소라고 한다.
- ㉡ 의사 숙어소 *quasi-phrasème*: 숙어소 AB가 'A', 'B'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의미 성분 'C'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경우, 즉 AB가 'ABC'의 의미를 갖는 경우.
- ㉢ 준숙어소 *semi-phrasème*: 숙어소 AB가 두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의미는 유지하지만 하나의 의미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즉 AB가 'AC' 또는 'BC'의 의미를 갖는 경우.

표제항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숙어소와 의사 숙어소들을 관용 표현 구획에 낱낱이 제시하고, 준숙어소에 관한 정보는 어휘함수로 처리한다. 관용표현 구획에는 표제항을 포함하는 숙어소들의 목록만 제시될 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들 각각의 숙어소는 독자적인 표제항으로 DEC에 등재되며, 여기서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시된다.

4. 어휘함수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휘함수 *fonction lexicale*, FL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단어들 사이의 어휘관계를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함수는 어휘관계 중에서도 제도화된 어휘관계 *institutionalized lexical relation*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란, 두 어휘 단위 L_1 과 L_2 가 있을 때 L_2 에 대해 M이라는 특정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L_1 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L_1 과 L_2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의미 M에 해당하는 어휘함수를 F라고 하면 이

어휘관계는 'F(L₂)=L₁'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정도”라는 의미(M)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피수식어(L₂)가 ‘거짓말’일 때에는 수식어(L₁)로 ‘새빨간’이 선택되고 피수식어가 ‘사의(謝意)’일 때에는 수식어로 ‘심심(甚深)한’이 선택된다. 이 때 ‘새빨강-’과 ‘거짓말’, ‘심심하-’와 ‘사의’는 제도화된 어휘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존재하며 그들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지가 다른 단어에 의해 결정될 때 이들 단어 사이의 어휘관계는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높은 정도”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함수를 Magn이라고 하면 위의 어휘관계는 ‘Magn(거짓말)=새빨간’, ‘Magn(사의)=심심한’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도화되지 않은 어휘관계는 그런 어휘적 민감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더러운”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더러운’, ‘不潔한’, ‘不淨한’, ‘지저분한’ 등이 있지만 이들은 피수식어가 무엇이나(‘손’, ‘집’, ‘옷’ 등)에 따라 어느 하나가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이들의 쓰임에 화용론적 제약이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휘적 민감성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므로 어휘함수에 의한 기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에서 함수이며(f(x)=y), x를 함수의 논항argument 또는 표제어mot-clé, y를 함수값valeur이라 한다. ‘어휘’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함수의 표제어도 어휘요소이고 함수값도 어휘요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매우 특징적인 의미로서, 다음의 3가지 특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8) 어휘함수의 내용적 특성

- ㉠ 어휘함수와 관련된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매우 많은 어휘요소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다.
- ㉡ 함수값이 되는 어휘요소도 매우 다양해야 한다.
- ㉢ 함수값이 되는 어휘요소는 논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휘함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함수의 정의구역과 치역의 크기가 크나 작으나에 따라 표준 어휘함수와 비표준 어휘함수로 나뉜다. F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반적이어서 매우 많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어 매우 다양한 함수값을 갖는 것은 표준 어휘함수이고, 제한된 적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거나 매우 적은 함수값밖에 갖지 않는 것은 비표준 어휘함수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매우 높은 정도의”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함수 Magn은 많은 단어에 적용되어 많은 함수값을 낳기 때문에 대표적인 표준 어휘함수로 분류된다. 반면에 영어에서 “썩은, 부패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함수는 비교적 적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고 함수값도 많지 않으므로 비표준 어휘함수의 예라 할 수 있다. 표준 어휘함수는 많은 언어에 나타나고 換言paraphrasing 규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표준 어휘함수는 특정 언어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환언 규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Mel'čuk은 대부분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표준 어휘함수가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이상의 어휘함수가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反義관계를 나타내는 어휘함수 Anti와 Magn이 합성된 AntiMagn은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AntiMagn과 같이 둘 이상의 어휘함수가 결합된 것은 복합 어휘함수, Anti나 Magn같이 둘 이상의 어휘함수로 분해될 수 없는 것은 단순 어휘함수라고 한다. 단순 어휘함수 중에는 혼자서는 실현되지 않고 항상 복합 어휘함수의 일부로만 실현되는 것도 있다. 강도의 강화, 약화를 뜻하는 Plus, Minus, 기동, 지속, 종결 등 사태의 相的 국면을 나타내는 Incep, Cont, Fin 등이 그 예이다.

복합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의 합성함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학에서는 $fg(L)=f(g(L))$ 이 성립되나 복합 어휘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ncepOper₁(‘협상’)≠‘들어가다’이고 Oper₁(‘협상’)≠‘벌이다, 하다’이지만 Incep(‘벌이다’)≠‘들어가다’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복합 어휘함수와 좀 다른 것으로 어휘함수의 배열configuration de fonctions lexicales이란 것이 있다. 서로 통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논항을 취하는 두 어휘함수의 결합으로서, 해체할 수 없는 하나의 의미를 둘이 함께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Magn+A₁(병) = 위독한 Magn+Manif(기쁨) = 넘치다

한편 어휘함수에 의해 맺어지는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계열관계나 통합관계냐에 따라 계열적 어휘함수와 통합적 어휘함수로 나누기도 한다. 반의관계를 나타내는 Anti, 동의관계를 나타내는 Syn 등은 계열적 어휘함수이고 Magn은 통합적 어휘함수의 예이다. 지금까지 어휘론은 계열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의·하의관계 등의 계열적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통합관계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Melčuk의 이론, 특히 어휘함수 개념은 통합관계에 대한 체계적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Melčuk의 어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 표준 어휘함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여러 언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언어간 어휘 대조 연구나 기계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목적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9) 단순 표준 어휘함수: 어휘요소 L에 대해 어휘요소들의 집합 f(L)을 연결지어 주는 함수 f로서, 다음 네 조건을 만족시킨다.

- ㉠ 두 어휘요소 L₁과 L₂의 모든 쌍에 대해, L₁과 f(L₁)의 관계는 L₂와 f(L₂)의 관계와 동일하다.
- ㉡ 일반적으로 f(L₁) ≠ f(L₂)
- ㉢ 함수 f의 표제어 수가 많아야 한다.
- ㉣ 함수 f의 함수값 수가 많아야 한다.

어휘함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단순 표준 어휘함수 중 중요한 것 몇 개를 제시한다.

4.1 계열적 어휘함수

1. Syn [synonymum]⁹⁾: 동의어.

9) [] 안에 제시한 것은 어휘함수의 이름의 출처이다. 대개 라틴어나 프랑스어와

Syn(결혼)=혼인	Syn(미워하다)=증오하다
Syn(어리둥절하다)=얼떨떨하다	Syn(사랑)=애정
Syn(쓰다)=사용하다	Syn(밝다)=환하다

의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擬似 동의관계의 경우 집합 관계 표시를 이용하여 Syn_{\supset} , Syn_{\subset} , Syn_{\cap} 와 같이 나타낸다. $Syn_{\supset}(X)=Y$ 는 Y의 정의가 X의 정의를 포함한다는 것(즉 Y의 의미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것, 다시 말해 Y가 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Syn_{\subset}(X)=Y$ 는 Y의 정의가 X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Syn_{\cap}(X)=Y$ 는 X의 정의와 Y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일치함[intersecting]을 의미한다.

Syn_{\supset} (좋아하다)=사랑하다 Syn_{\subset} (대화하다)=이야기하다 Syn_{\cap} (부업)=주방

2. Conv [conversivum]: 상대관계에 있는 단어. 의미 논항들의 지위가 바뀌는 양상을 숫자로 표시.

Conv ₂₁ (남편)=아내	Conv ₂₁ (이기다)=지다
Conv ₃₂₁ (주다)=받다	Conv ₂₃₁ (평가)=평판

3. Figur [figuraliter]: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상투적인 비유적 표현.

Figur(침체)=늪 [침체=침체의 늪]
Figur(홍분)=도가니 [홍분=홍분의 도가니]
Figur(비난)=화살 [비난=비난의 화살]
Figur(절망)=구렁텅이 [절망=절망의 구렁텅이]

4. S₀, V₀, A₀, Adv₀ [영 substantival, verb, adjective, adverb]: 어휘적 의미가 같은, 대응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S ₀ (죽이다)=살해	A ₀ (지혜)=지혜롭다
-------------------------	--------------------------

영어도 몇 개 있다.

V₀(승리)=이기다 Adv₀(빠르다)=빨리

4.1.1 명사 어휘함수

5. S_i [영 substantival]: 표제어가 가리키는 상황의 i번째 의미 논항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이름.

S₁(가르치다)=교사 S₂(가르치다)=과목 S₃(가르치다)=학생
 S₁(이야기)=화자 S₂(이야기)=내용 S₃(이야기)=청자
 S₁(팔다)=상인 S₂(팔다)=상품 S₃(팔다)=고객 S₄(팔다)=가격

6. Sing [singulus]: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하나의 예, 단위.

Sing(합대, 선단)=배 Sing(의회)=의원 Sing(내각)=각료
 Sing(당)=당원 Sing(총격)=발 Sing(나무)=그루 Sing(책)=권

7. Mult [multum]: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집합체. Mult와 Sing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음.

Mult(위원)=위원회 Mult(사절)=사절단 Mult(군인)=군대

4.1.2 형용사 어휘함수

8. A_i [영 adjective]: 표제어가 가리키는 상황의 i번째 논항의 (상황 내에서의) 역할을 정의해 주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A₁(즐기다)=즐겁다 A₂(속썩이다)=속상하다 A₂(괴롭히다)=괴롭다

9. Able_i [habilis]: 가능한 i번째 의미 논항을 정의해 주는 일반적 속성.

Able₁(타다)=可燃性이다 Able₁(발생하다)=가능하다 Able₁(웃기다)=우습다
 Able₂(놀라다)=놀랍다 Able₂(이해하다)=이해할 만하다
 Able₂(무서워하다)=무섭다 Able₂(존경하다)=존경스럽다
 S₁Able₁(올다)=올보 S₁Able₁Caus(웃다)=코미디언

10. Qual_i [qualitas]: 蓋然的인 i번째 논항을 정의해 주는 질적 속성. Qual_i는 Able_i의 개연성을 함의하나 그 逆은 성립하지 않음.
- | | |
|------------------------------------|-----------------------------|
| Qual ₁ (올다)=슬프다 | Qual ₁ (웃다)=즐겁다 |
| Qual ₂ (놀라다)=색다르다,유별나다 | Qual ₂ (이기다)=약하다 |
| Qual ₂ (이해하다)=당연하다,명백하다 | |

4.2 통합적 어휘함수

4.2.1 형용사 어휘함수

11. Magn [magnus]: “높은 정도로”, “높은 정도의”를 의미하는 수식어.
- | | |
|----------------------|-------------------|
| Magn(발전)=눈부신 | Magn(경쟁)=치열한,불꽃튀는 |
| Magn(지지)=열렬한,뜨거운 | Magn(戰果)=혁혁한,빛나는 |
| AntiMagn(목소리)=기어들어가는 | |

12-13. Plus, Minus : “더한 정도로”, “덜한 정도로”. 이들은 주로 복합 어휘함수의 일부로만 사용됨.

- | |
|---------------------------------|
| IncepPredPlus(가격)=치솟다,급등하다,폭등하다 |
| IncepPredMinus(기온)=급강하하다,뚝 떨어지다 |
| CausPredMinus(규제)=완화하다 |

14. Bon [bonus]: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기대되는,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속성.

- | | |
|---------------------|-------------------|
| Bon(제안)=매력적이다,그럴듯하다 | Bon(조건)=유리하다 |
| Bon(음식)=맛있다 | Bon(정리하다)=말끔히,깨끗이 |

4.2.2 부사 어휘함수

15. Adv_i [영 adverb]: 표제어가 가리키는 상황의 i번째 논항의 (상황 내에서의) 동작을 정의해 주는 속성을 나타내는 부사.

Adv₁(질주하다)=빠른 속도로

Adv₁(폭락하다, 폭등하다, 급락하다, 급등하다, 급강하하다)=큰 폭으로

Adv₁(변모하다, 달라지다, 성장하다, 발전하다)=몰라보게

Adv₂(급파하다)=갑자기, 급작스럽게

4.2.3 동사 어휘함수

16. Pred [praedicatum]: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거나 표제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가짐을 나타내는 동사. Pred(L)=L+Copul(L).

Pred(이웃)=이웃하다 Pred(독재자)=독재하다

Pred(폭군)=폭정을 휘두르다 Pred(교사)=가르치다

Pred(효자, 효녀)=효도하다

17-19. 기능동사

17. Oper_i [operari]: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는 기능동사.

Oper₁(결론)=내리다, 짓다, 내다 Oper₁(전화)=하다, 걸다

Oper₁(노력)=하다, 기울이다, 경주하다

Oper₁(도망)=하다, 치다, 가다, 오다, 다니다

Oper₁(성공)=하다, 거두다 Oper₁(실패)=하다, 돌아가다

IncepOper₁(토의, 심사, 심의, 협상)=들어간다

IncepOper₁(절망)=빠지다 IncepOper₁(파업)=돌입하다, 들어가다

Oper₂(공격, 파달림)=받다, 당하다 Oper₂(비웃음, 부러움, 미움)=사다

Oper₂(의심, 의혹)=받다, 사다 Oper₂(잔소리, 걱정, 꾸중, 핀잔)=듣다

Oper₂(저항)=받다, 부딪히다 Oper₂(조사, 검사, 진단, 비난, 놀림, 버림)=받다

Oper₃(약속1)=받다, 받아내다

18. Func_i [functionare]: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주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Func₀(결론)=나다,나오다 Func₂₁(명령,지시)=내려오다,떨어지다
 Func₀(침묵)=흐르다 Func₂₁(연락,전화,빼빼,무전,전보)=오다
 Func₁(부패,부정)=만연하다 MagnFunc₂₁(비난,질문)=쏟아지다
 MagnFunc₂₁(문의,전화)=빚발치다,쇄도하다

19. Labor_{ij(k)} [laborare]: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제2 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고 표제어의 j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Labor₁₂(고려,계산)=넣다 Labor₁₂(염두,기억)=두다
 Labor₁₂(심사,심의,토의,토론,표결)=부치다

20-22. 실현 동사

20. Real_{0/i} [realis]: 표제어 명사를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목표를 실현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가짐.
 Real₁(목적,목표)=달성하다,이루다,성취하다

Real₁(소원)=풀다,성취하다 Real₁(약속)=지키다,이행하다
 Real₁(주장)=증명하다,입증하다 Real₂(명령)=이행하다,수행하다,따르다
 Real₂(요구)=만족시키다,충족시키다,이행하다
 Real₂(법,법규,규제)=지키다,따르다 Real₂(시험,테스트)=붙다,합격하다

21. Fact_{0/i} [factum]: 표제어 명사를 주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목표가 실현
 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제1 보어로 가짐.

Fact₀(꿈,희망,소망)=실현되다,이루어지다 Fact₀(영화)=상영되다
 Fact₀(구름,떡구름)=끼다 Fact₁(신)=내리다 Fact₁(귀신)=들리다

22. Labreal_{ij} [Labor+Real]: 표제어 명사를 제2 보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
 목표를 실현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고 j번째
 논항을 목적어로 가짐.

Labreal₁₂(絞首臺)=매달다

Labreal₁₂(칼, 톱)=자르다, 썰다

23-25. 相 동사. Incep [incipere], Fin [finire], Cont [continuare]: 사태의 시작, 끝, 계속의 相的 국면을 나타냄.

Incep(있다)=생기다, 발생하다

IncepOper₁(이야기, 말)=걸다, 붙이다

Fin(P) = Incep(nonP)

FinOper₁(오해)=풀다

FinOper₁(희망)=없다, 버리다

FinOper₂(신임, 신용)=없다

Cont(P) = nonFin(P) = nonIncep(nonP)

ContOper₁(침묵)=지키다

ContOper₁(침착성)=유지하다

26-28. 사동사

26. Caus [causare]: 사태의 발생을 야기함.

Caus(자다)=채우다

CausIncep(있다)=만들다, 창조하다, 세우다, 건립하다

CausOper₁(절망)=빠뜨리다

CausOper₁(희망)=주다, 붙여넣다

CausFinOper₁(희망)=빼앗다

CausOper₂(공격, 침략)=부르다, 초래하다

27. Liqu [liquidare]: 사태가 중지되도록 함.

Liqu(P) = Caus(nonP)

Liqu(있다)=없애다

LiquFunc₁(부패, 부정)=일소하다, 척결하다

28. Perm [permittere]: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Perm(p) = nonLiqu(p) = nonCaus(nonP)

PermOper₁(공격, 침략)=허용하다

PermOper₁(입장, 판매)=허락하다, 허가하다, 용인하다, 묵인하다, 못본체하다

notPermOper₁(입장, 판매, 공격, 침범)=불허하다,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29. Degrad [degradare]: 표제어 명사를 주어로 취하면서 표제어의 상태가 나빠짐을 의미하는 동사.

Degrad(음식)=상하다 Degrad(옷)=헤지다, 헐다
 Degrad(꽃)=시들다 Degrad(기강)=해이해지다
 Degrad(기억력)=쇠퇴하다, 떨어지다
 Degrad(달걀)=끓다 Degrad(색)=바래다 Degrad(쇠)=녹슬다

30. Son [sonare]: 표제어 명사의 특징적 소리가 남을 나타내는 동사.

Son(개)=짖다 Son(바람)=윙윙거리다
 Son(시계)=똑딱거리다 Son(돼지)=꿀꿀거리다
 Son(자동차, 엔진)=붕붕거리다 CausSon(자동차, 엔진)=붕붕거리다

이 밖에 한국어 어휘 기술을 위해 설정될 수 있을 만한 잠정적인 FL들을 다음에 몇 가지 제시한다.

Son_{adv}: 표제어가 지시하는 동물이나 물건이 발하는 특징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표제어와의 대응관계 속에서 형식화하는 FL. 한국어에 풍부한 의성어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FL Son과 구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n_{adv}(개)=멍멍 Son_{adv}(개구리)=개골개골 Son_{adv}(귀뚜라미)=귀똥귀똥
 Son_{adv}(까치)=까각 Son_{adv}(눈)=쁘드득 Son_{adv}(돼지)=꿀꿀
 Son_{adv}(소)=음매 Son_{adv}(시계)=똑딱똑딱 Son_{adv}(전화)=따르릉
 Son_{adv}(중)=땡땡 Son_{adv}(쥐)=찍찍 Son_{adv}(차)=부르릉
 Son_{adv}(참새)=쩍쩍 Son_{adv}(호랑이)=어흥

Modul: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의 동사와 악기 명사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FL.

Modul(가야금)=뜯다 Modul(거문고)=타다 Modul(기타)=치다
 Modul(나팔)=불다 Modul(바이올린)=켜다 Modul(북)=치다
 Modul(피리)=불다 Modul(피아노)=치다

Indu: 몸에 착용하는 행위의 동사와 착용하는 의복, 장신구 등의 표제어 명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FL.

Indu(귀걸이)=달다,하다	Indu(꽃)=달다, 꽃다	Indu(넥타이)=매다,하다
Indu(모자)=쓰다	Indu(목걸이)=하다	Indu(반지)=끼다
Indu(시계)=차다	Indu(신)=신다	Indu(안경)=쓰다,끼다
Indu(양말)=신다	Indu(옷)=입다	Indu(장갑)=끼다
Indu(칼)=차다	Indu(허리띠)=매다, 하다	

5. 어휘 기술의 예

결합설명 사전의 방법론에 따라 한국어의 동사 ‘약속하다’와 명사 ‘약속’을 대략적으로 기술해 본 예를 다음에 제시한다.

표제어: 약속하다

품사: 동사

형태론적 정보: ①조어론적 정보: [약속]N+[하-]V

②활용 정보: 약속하고, 약속하니, 약속하여/약속해

I.1. X가 Z에게 Y를 약속하다 = Z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Y가 일어날 것이며, X가 Y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X가 Z에게 알리다

I.2. X가 Z와 Y를 약속하다 = X와 Z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Y가 일어날 것이며, X와 Z가 Y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서로에게 알리다

지배도식:

I =X	II=Y	III=Z
N _{nom}	(1) N _{acc} (2) 절+-을 것을 (3) 절+-기로 (4) 절+-다고/자고/마고	(1) N _{dat} (2) N _{com}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Y는 사태임.
- ③ Z=(1)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임.
- ④ Z=(2)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Z 또는 X임.
- ⑤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 ⑥ Z=(1)이고 Y=(4)일 때 '절+-다고/마고'만 가능.
- ⑦ Z=(2)이고 Y=(4)일 때 '절+-자고'만 가능.

어휘함수:

Syn : 言約하다

Syn_n : 다짐하다, 誓約하다, 맹세하다

S₀=S₂ : 약속

Magn : 굳게, 철석같이, 목숨을 걸고, 엄숙히

용례:

경찰은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의 조속한 철수를 약속했다. // 철수는 어머니에게 매일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했다. // 철수는 아내에게 매일 일찍 귀가하기로 약속했다. // 철수는 영희에게 내일 점심을 사주겠다고/사주마고 약속했다. // 나는 아버지와 매일 아침 약수터에 가기로/가자고 약속했다.

II. X가 Z에게 Y를 약속하다 = Z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Y가 일어날 것이라고 Z가 추론하게끔 X가 유발하다

지배도식:

I=X	II=Y	III=Z
(1) N _{nom} (2) 절+-은 것이 (3) 절+-다는 것이	(1) N _{acc} (2) 절+-을 것을 (3) 절+-다는 것을 (4) 절+-음을	N _{dat}

- ① Z는 사람임.
- ② X와 Y는 사태임.

어휘함수:

Syn_n : 보장하다, 보증하다

S₀=S₂ : 약속

Magn : 확실히, 분명히

용례:

건강한 젊은이/어린이들은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 수 년 동안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경제 전망이 밝으리라는 것을 약속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II. X가 Z와 약속하다 = X와 Z가 어떤 시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다

지배도식:

I =X	II =Z
N _{nom}	N _{com}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어휘함수:

S₀ : 약속

용례:

내일 오후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아무하고도 약속하지 말아라. // 철수하고 약속했던 것을 깜빡 잊고 약속 장소에 안 나갔다.

표제어: 약속

품사: 명사

형태론적 정보: ①조어론적 정보: 단순어. 한자어 구성소 ‘約’과 ‘束’의 결합.

②공용 정보: 약속이, 약속을, 약속으로, ……

I. Z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Y가 일어날 것이고 X가 Y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X가 Z에게 알린 사실.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X의 책임. 또는 그 일 Y.

지배도식:

I=X	II=Y	III=Z
N _{gen}	(1) N _{gen} (2) N-에 대한 (3) 절+-을/는 (4) 절+-기로 한 (5) 절+-다는/자는	(1) N-에 대한 (2) N-와의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Y는 사태임.
- ③ Z=(1)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임.
- ④ Z=(2)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Z 또는 X임.
- ⑤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 ⑥ Z=(1)이고 Y=(5)일 때 ‘절+-다는’만 가능.
- ⑦ Z=(2)이고 Y=(5)일 때 ‘절+-자는’만 가능.
- ⑧ Y=(2)이면서 Z=(1)일 수는 없음.

어휘함수:

Syn : 언약

Syn_n : 다짐, 서약, 맹세

V₀ : 약속하다

Magn : 굳은, 철석같은

Oper₁ : 하다

Oper₃ : 받다, 받아내다

LiquOper₁ : 취소하다

Func₀ : 되다, 있다

Real₁ : 지키다, 이행하다

AntiReal₁ : 어기다, 깨다, 파기하다, 저버리다

Fact₀ : 지켜지다, 이행되다, 실현되다

용례 I

철수의 영희에 대한 전적인 지지의 약속 //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 대통령은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술을 먹지 않겠다는 철수의 약속은 전혀 믿을 수 없다. // 동물원에 가기로 한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II. X와 Z가 어떤 시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

지배도식:

I = X	II = Z
N _{gen}	N _{com+gen}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어휘함수:

V₀ : 약속하다

Oper₁ : 하다

LiquOper₁ : 취소하다

용례:

나는 오늘 종로에서 영희와 약속이 있다. // 내일 약속 잊지 말고 꼭 나와. //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쉬어야겠다.

참 고 논 저

- 이병근(1994), 《근대국어 용언의 어휘문법적 특성》, 동양학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이병근(1999), 한국어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관한 사전학적 연구,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정수영(1992),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속에서의 어휘기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재성 (1993),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 통사적 기술과 사전편찬》, 동방학지 81, 연세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홍재성 (1995a), 《어휘함수 개념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 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홍재성(1995b),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 따른 불어어휘의 연구: 어휘함수 개념의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 홍재성·박동호(2000), 펠측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연구, 인문논총 4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Fontenelle, T. (1997). *Turning a Bilingual Dictionary into a Lexical-Semantic Database*, Tübingen, Max Niemeyer.
- Goddard, C. (1998). *Semant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Mel'čuk, I. (1988a). *Dependancy Syntax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l'čuk, I. (1988b).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Vingt ans après》, 1re partie, *Cahier de lexicologie* 52-1, 5-50.
- Mel'čuk, I. (1988c).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Vingt ans après》, 2e partie, *Cahier de lexicologie* 53-2, 5-53.
- Mel'čuk, I. (1996). 《Lexical Functions: A Tool for the Description of Lexical

- Relations in a Lexicon», In L. Wanner (ed.) (1996), 37-102.
- Mel'čuk, I. and al. (1984).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and al. (1988).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I*,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and al. (1992).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II*,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A. Clas et A. Polguère (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 Steele, J. (ed.) (1990). *Meaning-Text Theory: Linguistics, Lexicography and Implications*, University of Ottawa Press.
- Steele, J. and I. Meyer (1990). «Lexical Functions in an Explanatory Combinational Dictionary: Kinds, Descriptions and English Examples», In J. Steele (ed.) (1990).
- Wanner, L. (ed.) (1996).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y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anner, L. (ed.) (1998). *Recent Trends in Meaning-Text Theor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ierzbicka, A. (1996), *Semantics: Primes and Universal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Lexicographic Methodology of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various types of dictionaries has greatly increased.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DEC) is a special dictionary which was designed and has been compiled by I. A. Mel'čuk and his colleagues in Université de Montréal. This dictionary purports to represent native speakers' lexical knowledge in entirety, and is famous for its rigorous principles and criteria for describing this knowledge. Especially, definition, syntactic properties, and collocational properties of lexical items are presented explicitly and carefully. DEC uses a special device called Lexical Function to describe lexical collocational relations. In this paper, various principles and criteria for elaborating lexicographic informations in DEC are presented, and the prospects of applying these methods to design a new type of Korean dictionary are explored.